3월
넷째 주

가정예배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찬양해요 찬송가 430장

기도해요 가족 중 한 명이 대표기도해요

말씀을 읽어요 고린도전서 7:17–24

17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
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18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
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19 할례 받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 것도 아
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20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1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22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23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24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말씀 이해하기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결혼 문제, 독신 문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예배 예절 문제, 성만찬의 질서, 은사와 부활에 관한 문제에 관한 교리를, 교리의 교과서답게 성도들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신자들이 각자 처한 현재의 자리에서 만족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삶의 부분을 180도 바꾸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의 백성으로의 선택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구원하실 자로 부르셨습니다. 둘째는 역할에 관한 부르심입니다. 교회에서 주의 일을 맡아 하도록 부르셨고, 직업이나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각자의 위치에서 현재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받아들이고 주의 부르심대로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기

❶ 바울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구절을 찾아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❷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끌기 위해, 천사 대신 부족한 인간을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일 중, 나를 필요로 할 것 같은 5가지를 우선 순위에 따라 써보십시오.

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종교적인 차이로 할례를 받은 자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자도 있었습니다. 또 당시는 노예 제도가 보편화 되었던 시기라 교인 중에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종교적, 신분적 차이를 갖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0절)?

❹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생활수준도 다르고, 직업(학생, 회사원, 공무원, 전문직, 사역자 등)도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부르셔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환경에 감사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